

리사이클사회 일구는 원로 자원인

## 생산은 동맥산업, 리사이클은 정맥산업

오재현 / (사)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회장

“자 원재활용이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자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떤 제품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도 혹은 타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 소비 후 폐기단계에서 수집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원료의 형태로 다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자원재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에서 고령인 나이에 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교류와 동아시아 자원리사이클링 학술대회 준비로 오재현 회장은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정부의 연구용역사업 만큼이나 큰 비중을 둔 '한·일 자원리사이클링 공동 워크샵'은 통상산업부의 지원산업으로서 세계의



▲(사)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오재현 회장

권위자를 일본에서 10명, 우리나라에서 10명의 연사로 계획돼 있을 만큼 큰 행사로 알려져 있다.

“공동 워크샵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의 출발은 자원리사이클링연구회를 모태로 합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등 4개국의 실무자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연구해 오다가 심층적이고 폭넓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 동아시  
아 자원리사이클링 국제심포지엄입니다. 그래  
서 92년에 자원리사이클링연구회를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 통상부산하에 한국자원리사이  
클링학회로 두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교류와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것  
을 습득한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상  
하리 만치 일본의 시스템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한가지 예로 리사이클법이  
새롭게 일본에서 추가되면 그대로 적용합니  
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일본은 그  
법을 권장사항으로 놓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  
든요 다른 나라에서 볼때 한국은 리사이클링  
산업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오해(?) 하지만 실  
질적으로는 어디 그렇습니까? 포장폐기물 예  
치금에 있어서도 일본은 그 법이 통과된 해의  
2년 후 30%, 다음 년도에 50%씩 단계적으  
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  
전히 100%”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정확한(과학적으로) 통  
계가 잘 돼 있는 일본에 비해 아직도 부정확  
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정책을 이해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간에 학술토론, 페타이  
아·폐자재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온 오재현  
회장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국내  
학계에서 36년간 분필을 잡아 오다 지금은 68  
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일정  
한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문제는 조그만  
실천인데…….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계,  
환경단체 등이 연계하여 분리수거활동에 앞장  
서고, 산업계는 재활용산업의 보호 육성에 직  
접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재활용  
품의 수거 인력과 장비를 확보, 효율적으로  
회수체계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최소의 행정비  
용으로 재활용 생산시설에 폐자원이 유입되는  
데 최대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겠지요.”

민·관·학의 삼위일체를 강조한 그는 앞으  
로 새롭게 태어날 사회를 꿈꾸고 있었다. 그  
것은 바로 ‘리사이클사회’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는 산업폐기물의 다량 유출을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에너지 효율을 어떤 식  
으로 증가시킬 것인가를 불러 일으킨다. 리싸  
이클사회는 여기서 부터 출발한다고 오재현  
회장은 보고 있다. 즉 생산이 동맥산업이라면  
리사이클산업은 정맥산업으로 비교될 만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차분하  
게 설명하는 그에게서 ‘리사이클사회’는 멀지  
않았다고 본다. [K]

변준섭 기자